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문화체육과)

의안번호	제171호
제 출 자	소형준 의원 외 6명(2023. 8. 21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,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,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.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: 100분의 50 감면 가능(안 제19조제1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10조제1항제5호¹⁾에 따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사용료 50%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, 단서조항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30%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20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.84명, 2021년도 0.81명, 2022년 0.78명, 2023년 2분기 0.7%로 출산율이 더욱 감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
- 대통령 직속 ‘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’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‘21~’ 25)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다자녀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각종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‘다둥이 행복카드’ 소지자 모두에게 50%의 감

1) 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31.)

5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), [별표 3]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,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(체육관, 축구장·족구장·풋살장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),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: 100분의 50 (개정 2015.2.27, 2020.12.31, 2022.12.30.)

면 효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